

융복합 사회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정상우
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Survey and Improvement Scheme for Clinical Practice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Students in the Convergence Society

Sang-Woo Jung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nam Health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현실과 실태를 조사하여 임상실습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융복합 사회에서 임상실습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할 권리만큼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최근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등장에 의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115명이 대상이다. 자료는 2016년 6월 16-17일까지 수집하여 SPSS v.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응급실만을 경험한 2학년은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반면 응급실과 119 구급대를 경험한 3학년은 119 구급대 임상실습의 후광효과로 취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두 그룹 모두 타직종에서의 다양한 임상실습 경험을 원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임상실습기관을 제공하여 취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다가올 1급 응급구조사의 취업난을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1급 응급구조사, 임상실습 기관, 임상실습 만족도, 취업인식, 임상실습 활성화 방안, 융복합 사회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for clinical practice after examining the reality and the situation of clinical practice of EMT students. Clinical practice is as important as right to a variety of job experience in the convergence society and heating up according to appearance of NCS. Subjects were 115 EMT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or Jun. 16-17(2016), and analyzed by SPSS v. 18.0. Sophomores, who experienced only ER have a negative view about their future job prospect. On the other hand, juniors, who experienced ER and 119 rescue team have not virtually changed the way they view their future job prospect, supposedly due to the halo effect of the 119 rescue team clinical practices. Both groups wish to hav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diverse clinical practices. This study suggests that will help students have a positive view about their job prospects by providing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and solve the problem of difficulty in getting jobs.

Key Words : Paramedics,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b recognition, Activation for clinical practices, Convergence society

Received 26 October 2016, Revised 16 December 2016
Accepted 20 January 2017, Published 28 Jan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Sang-Woo Jung(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nam Health University)
Email: swjung@dongnam.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이다. 1급 응급구조사는 1996년에 처음 배출되었고 현재 전국 41개의 3년제와 4년제 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서 배출하고 있다. 3년제 대학교는 평균 과목수 58.1개, 평균 130.1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4년제 대학교는 평균 과목수 61.1개, 평균 141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타 보건계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3년제 대학의 평균 시수는 이론 95.4시간(59.9%), 실습 63.8시간(40.1%)이고, 4년제 대학의 평균 시수는 이론 111시간(59.5%), 실습 76.5시간(40.5%)이다. 또한 임상 및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가시험으로는 실기 과목과 이론 과목으로 나누어지며, 실기 과목에 합격해야 이론 과목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가시험 이론과목으로는 기초의학, 전문응급처치학 총론, 전문응급처치학 각론, 응급환자 관리학, 응급의료 관련 법규 등이 있다[1].

1급 응급구조사는 2015년 13,913명이며, 전국의 응급구조(학)과에서 연간 1,300여 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된다. 2015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는 907명(6.5%)에 불과하며, 소방서 119 구급대에서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는 3,382명(24.3%)이고 연간 채용인원은 300~500명에 불과하다[2,3].

1급 응급구조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병원 전 응급처치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사회에 녹아들면서 여러 분야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또한 어우러져 발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1급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처치 영역보다는 병원 내 처치 영역과 그 외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응급구조(학)과에서 배출되는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현장에서 처치와 이송을 담당하며 소방서 119 구급대, 응급실 및 의료기관, 군·교육·국가기관, 체육관련 기관, 산업체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4,5]. 이에 1급 응급구조사를 배출하는 대학교들은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필수불가결한 현실이다.

1급 응급구조사의 병원 내 영역은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석고실, 신경외과 외래, 정형외과 외래, 일반외과 외래 등이다[6]. 병원 내 1급 응급구조사는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미생물 배양 검사), 저혈당 환자의 혈당 평가, 활력징후 평가, 시력검진 및 간단한 안과적 평가, 직장 검사, 기본 심폐소생술, 환기 보조, 위장관 튜브 삽관 및 세척, 상처 소독, 경추 및 척추 고정, 골절 및 염좌의 부목고정, 단순 도뇨관 삽입, 기도 확보 및 기도유지, 산소 투여, 심장 제세동, 관장, 단순 열상의 봉합, 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 의사의 진료보조, 환자 중증도 분류,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시 동승, 병원 내 심폐소생술 팀의 일원, 중환자 감시 및 처치 등을 수행하고 있다[4,7]. 이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기관은 수술실, 중환자실, 회복실, 일반 외래, 응급실, 소방서, 병동 등으로 다양하지만 현재의 응급구조(학)과 임상실습 교육과정은 대부분 실습과목 명칭만 다를 뿐 병원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의 구급차 동승 실습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융복합 사회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8,9,10]. 임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실습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만, 적절한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형식적인 실습이 진행되고 있다[11].

타 보건 직종인 간호(학)과는 1,000시간의 실습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정신병원, 여성병원 등)에서 실습한다. 그 외 간호학과는 보건소, 학교보건실, 산업장 보건실, 산업의학센터, 복지관, 요양 시설 등에서 실습하므로 다양한 임상실습 경험에서 응급구조(학)과와 차이가 있다[12,13,14].

또 다른 보건 직종인 작업치료(학)과는 대학병원, 재활병원, 종합병원, 사설기관, 노인병원, 아동병원, 복지관, 학교, 보건소 등에서 실습하므로 다양한 임상실습 경험에서 응급구조(학)과와 차이가 있다[15].

임상실습을 경험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의료기관 내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가 1급 응급구조사의 주된 근무처로 생각하고 있지만 1급 응급구조사는 융복합 사회에 걸맞게 다양한 곳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응급구조(학)과 재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응급구조(학)에 대한 직업관 연구에서 응급구조(학)을 유지하겠다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고 응급구조(학)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16].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기관 및 산업체에서 실제 대상자들에게 적용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길러주는 임상실습은 복잡성을 지닌 하나의 사회조직으로

의 투입 과정이며 필수 교육과정이고 1급 응급구조사의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9].

융복합 사회에서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로의 이분화된 임상실습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의 취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대다수의 졸업생이 특정 분야로 취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후 배출되는 졸업생은 고도의 취업난을 겪을 것이다[17].

융복합 사회란 종래의 기술, 산업, 서비스의 특정한 영역에서의 벽을 없애고 상호 의사소통 영역 너머로 확장되어 타 분야와의 상승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정보의 교류로 혼합되고 분화되면서 새로운 관점을 이루어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18,19]. 기업은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성과측정 시스템(PMS :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을 구축 및 활용하여 개인 능력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20]. 이에 의료기관 내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중복된 업무가 발생되고 있으며 1급 응급구조사에게도 능력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실적'이 핵심지표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 한 것이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임상실습 또한 이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21,22]. 대학교육의 정규과정인 임상실습교육은 내용면과 질적인 면에서 현실이나 시대 상황에 걸맞게 충분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9].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융복합 사회에서 임상실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융복합 사회에 걸맞은 응급구조(학)과 임상실습교육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 1) 응급구조(학)과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다.
- 2)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의 임상실습 현황을 알

아보고 임상실습 장소에 따른 인식 차이를 알아본다.

- 3) 입학시, 임상실습 전·후 희망 취업기관의 변화를 알아본다.
- 4) 임상실습 전·후 취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 5) 타직종의 임상실습 경험과 필요성 그리고 임상실습이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 연구 방법

3.1 설문 조사 목적 및 대상

본 연구는 Lee[15] 등의 설문 도구를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의료기관 내 응급실 임상실습을 경험한 2학년과 의료기관 내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D 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67명, 3학년 48명, 총 1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3문항, 전공 특성 3문항, 임상실습 만족도 16문항, 기관별 임상실습 현황 9문항, 임상실습 장소에 따른 인식 6문항, 입학시와 임상실습 전·후 희망직종 5문항, 임상실습 전·후 취업인식 4문항, 타직종 임상실습의 경험 및 필요성 그리고 영향 3문항,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2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 고려

설문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3.3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16년 6월 16일-17일까지이며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대상자가 자기 보고 형식으로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3.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 중복체크나 결측치는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성별에 따른 응급구조(학)과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 및 Cronbach's alpha 신뢰 지수를 측정하였다.
- 3)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의 임상실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임상실습 장소에 따른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test 및 Cronbach's alpha 신뢰 지수를 측정하였다.
- 5) 입학시, 임상실습 전·후 희망 취업기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6) 임상실습 전·후 취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test 및 Cronbach's alpha 신뢰 지수를 측정하였다.
- 7) 타직종의 임상실습 경험과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8) 임상실습이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학년이 67명(58.3%), 3학년이 48명(41.7%)이었다. 성별은 남자 74명(64.3%), 여자 41명(35.7%)이었고 나이는 19~24세 91명(79.1%), 25~30세 22명(19.1%), 30세 초과 2명(1.7%)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N	%
Year	Sophomores	67	58.3
	Juniors	48	41.7
Gender	Male	74	64.3
	Female	41	35.7
Age(years-old)	19~24	91	79.1
	25~30	22	19.1
	>30	2	1.7
Total		115	100.0

4.2 조사대상자의 전공 특성

조사대상자의 전공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급구조(학)과 선택요인(중복 선택 가능)은 '남을 도울 수 있어서' 42명(36.5%), '1급 응급구조사에 대한 좋은 인상' 25명(21.8%), '취업률이 높아서' 20명(17.4%), '고등학교 성적 맞춰서' 17명(14.8%), '부모님이나 지인 권유' 11명(9.6%), 기타 7명(6.1%) 순이었다. 졸업 후에 전공 관련 취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은 임상실습지도자(임상실습 장소) 43명(37.4%), 교수(대학교) 42명(36.5%), 기타 13명(11.3%), 부모님(가족) 11명(9.6%), 친구(동기) 7명(6.1%), 인터넷 2명(1.7%) 순이었고, 응급구조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 56명(48.7%), '매우 만족' 33명(28.7%), '보통' 20명(17.4%), '대체로 불만족' 4명(3.5%), '매우 불만족' 2명(1.7%) 순이었다.

<Table 2> Major-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N	%
Influencing factors of major choice [†]	High school grade	17	14.8
	Good chance of getting jobs	20	17.4
	Recommendation by parents or acquaintances	11	9.6
	Good impression of Paramedics	25	21.8
	Being able to help others	42	36.5
	Other	7	6.1
Influencing factor of major related job opening	Professor(University)	42	36.5
	Friends(Classmates)	7	6.1
	Clinical practice instructor	43	37.4
	Parents(family)	11	9.6
	Internet	2	1.7
	Other	13	11.3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unsatisfied	2	1.7
	Unsatisfied	4	3.5
	So-so	20	17.4
	Satisfied	56	48.7
	Very satisfied	33	28.7

[†] Multiple response

4.3 임상실습 만족도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실습환경 만족도는 남학생(M=3.68, SD=0.82), 여학생(M=3.43, SD=0.612)로 성

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t=1.820, p>0.05$), 실습지도 만족도는 남학생($M=3.69, SD=0.927$), 여학생($M=3.38, SD=0.642$)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t=2.14, p<0.05$). 실습 시간과 실습 평가 만족도는 남학생($M=3.56, SD=0.9$), 여학생($M=3.32, SD=0.645$)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t=1.659, p>0.05$), 실습 후 만족도는 남학생($M=3.95, SD=0.915$), 여학생($M=3.73, SD=0.693$)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1.5, p>0.05$).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9이고, 하부 영역별 신뢰도는 실습환경 만족도 .917, 실습지도 만족도 .916, 실습시간과 실습 평가 만족도 .917, 실습 후 만족도 .934이다.

<Table 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Gender	M	SD	t	p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Male	3.68	.820	1.820	.072
	Female	3.43	.612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instructor	Male	3.69	.927	2.140*	.035
	Female	3.38	.642		
Satisfaction with hours of clinical practice and evaluation	Male	3.56	.900	1.659	.100
	Female	3.32	.645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in general	Male	3.95	.915	1.500	.137
	Female	3.73	.693		

* $p<0.05$

4.4 응급실 임상실습 현황

응급실 임상실습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급실 임상실습 기관은 대학병원 응급실이 100명(86.9%)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응급실 13명(11.3%), 준 종합병원 응급실 1명(0.9%), 기타 1명(0.9%) 순이었다.

임상실습 기간은 1-4주 67명(58.3%), 13-16주 30명(26.1%), 5-8주 13명(11.3%), 9-12주 3명(2.6%), 16주 초과 2명(1.7%) 순이었다. 임상실습지도자의 자격 또는 면허는 1급 응급구조사가 108명(93.9%)로 가장 많았고 기타 6명(5.2%), 의사 1명(0.9%) 순이었으며 임상실습지도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51명(44.3%), 비정규직 50명(43.5%), 기타 14명(12.2%) 순이었다.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가 101명(87.8%)로 가장 많았고 2교대 근무 10명(8.7%), 기타 4명(3.5%) 순이었다.

<Table 4> Clinical practice in ER

Clinical practice in ER		N	%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ER)	Semi-hospital	1	0.9
	General hospital	13	11.3
	University hospital	100	86.9
	Other	1	0.9
Clinical practice period(week)	1-4	67	58.3
	5-8	13	11.3
	9-12	3	2.6
	13-16	30	26.1
	> 16	2	1.7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qualification or license	doctor	1	0.9
	Paramedics	108	93.9
	Nurse	0	0.0
	Other	6	5.2
Types of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Regular employee	51	44.3
	Non-regular employee	50	43.5
	Other	14	12.2
Types of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work	Two-shift work	10	8.7
	Three-shift work	101	87.8
	Ordinary daily work	0	0.0
	Other	4	3.5

4.5 소방서 119 구급대 임상실습 현황

3학년 학생(N=48)들의 소방서 119 구급대 임상실습 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방서 119 구급대 임상실습 기간은 1-4주가 43명(89.6%)로 가장 많았고 5-8주가 5명(10.4%) 이었다.

임상실습지도자의 자격 또는 면허는 1급 응급구조사가 43명(89.6%)로 가장 많았고 기타 3명(6.2%), 간호사 2명(4.2%) 순이었다. 임상실습지도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46명(95.8%)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이 2명(4.2%)이었으며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 36명(75.0%), 2교대 근무 12명(25.0%) 이었다¹⁾.

<Table 5> Clinical practice in 119 rescue team

Clinical practice in 119 rescue team		N	%
Clinical practice period(week)	1-4	43	89.6
	5-8	5	10.4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qualification or license	Paramedics	43	89.6
	Nurse	2	4.2
	Other	3	6.2
Types of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Permanent	46	95.8
	Temporary	2	4.2
Types of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work	2-shift system	12	25.0
	3-shift system	36	75.0

1) 전체 응답자 115명 중 3학년 4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4.6 임상실습 장소에 따른 인식 차이

2학년 학생들의 임상실습 장소(응급실)에 대한 인식과 3학년 학생들의 임상실습 장소(응급실, 소방서 119 구급대)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 표본 t-test 및 Cronbach's alpha 신뢰 지수를 측정하였다.

임상실습 장소에 따른 인식 조사 문항은 '임상실습 지도자로부터 알게 되는 1급 응급구조사 관련 정보에 대한 느낌'과 '임상실습 장소에 대한 만족도', '임상실습이 응급구조학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기술 통계적 분석 결과,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응급실 임상실습만 경험하였는데 임상실습 지도자로부터 알게 되는 1급 응급구조사 관련 정보에 대한 느낌은 M=3.65, S·D=.942(t=31.187, p<.000)이었다. 임상실습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M=3.58, S·D=.950(t=30.415, p<.000)이었고 응급구조학 전공 관련 학습에의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M=4.03, S·D=.918(t=35.399, p<.000)이었다. 임상실습 지도자로부터 알게 되는 1급 응급구조사 관련 정보에 대한 느낌과 임상실습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었으나 전공 학습 도움 여부에서는 긍정적이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²⁾. 3학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응급실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이 소방서 119 구급대 임상실습 인식보다 낮았다. 임상실습 지도자로부터 알게 되는 1급 응급구조사 관련 정보에 대한 느낌은 응급실(M=3.54, S·D=.751), 소방서 119 구급대(M=4.00, S·D=0.843) 이어서 응급실이 소방서 119 구급대 보다 부정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308, p<.01). 임상실습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응급실(M=3.54, S·D=0.751), 소방서 119 구급대(M=4.37, S·D=0.903) 이어서 응급실이 소방서 119 구급대 보다 만족도가 낮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389, p<.001). 한편 응급구조학 전공 관련 학습에의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응급실(M=4.13, S·D= 0.687), 소방서 119 구급대(M=4.06, S·D=0.854)여서 임상실습 장소에 따른 전공 학습 도움 여부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t=.401, p>.05)³⁾. 2학년의 응급실 인식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0이고, 3학년의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 인식 차이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0이다.

<Table 6> Viewpoint of clinical practice in sophomore

Classification		M	SD	t	p
Things they learn from instructors about Paramedics	ER	3.65	.942	31.187***	.000
Satisfaction with places of clinical practice	ER	3.58	.950	30.415***	.000
Whether the practice is helpful in enhancing major-related knowledge	ER	4.03	.918	35.399***	.000

*p<.05, **p<.01, ***p<.001

<Table 7> Viewpoint of ER and 119 rescue team practice

Classification		M	SD	t	p
Things they learn from instructors about Paramedics	ER	3.54	.751	-3.308**	.002
	119 rescue team	4.00	.843		
Satisfaction with places of clinical practice	ER	3.54	.751	-6.389***	.000
	119 rescue team	4.37	.903		
Whether the practice is helpful in enhancing major-related knowledge	ER	4.13	.687	.401	.690
	119 rescue team	4.06	.854		

*p<.05, **p<.01, ***p<.001

4.7 입학 시, 임상실습 전·후 시점에 따른 희망 취업기관의 변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입학시 희망하는 취업기관과 임상실습 전·후 희망하는 취업기관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재 상황에서 조사하였다.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입학 시 희망하는 취업기관은 소방서 119 구급대 81명(74.3%), 응급실 19명(17.4%), 의료기관(응급실 제외) 5명(4.6%), 기타 기관(군·교육·국가기관 등) 4명(3.7%) 순이었다. 그러나 임상실습 전에는 소방서 119 구급대 71명(65.1%), 응급실 23명(21.1%), 기타 기관(군·교육·국가기관 등) 10명(9.2%), 의료기관(응급실 제외) 5명(4.6%) 순으로 변화였고 임상실습 후에는 소방서 119 구급대 75명(68.8%), 응급실 15명(13.8%), 기타 기관(군·교육·국가기관 등) 14명(12.8%), 의료기관(응급실 제외) 5명(4.6%) 순으로 변화하였다.

2학년의 경우 입학시부터 임상실습 전까지 희망 취업기관에 대한 생각이 변한 학생은 14명(22.2%), 생각이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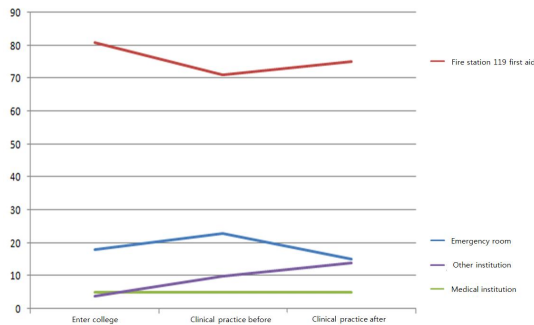
2) 전체 응답자 115명 중 2학년 6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3) 전체 응답자 115명 중 3학년 4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하지 않은 학생은 49명(77.8%) 이었고 임상실습 전·후로 생각이 바뀐 학생은 13명(20.6%), 생각이 변하지 않은 학생은 50명(79.4%) 이었다. 3학년의 경우 입학시부터 임상실습 전까지 희망 취업기관에 대한 생각이 변한 학생은 11명(23.9%), 변하지 않은 학생은 35명(76.1%)이었고 임상실습 전·후로 생각이 바뀐 학생은 17명(37.0%), 생각이 바뀌지 않은 학생은 29명(63.0%)이었다).

<Table 8> Changes for future jobs between the entrance to college and before/after clinical practice

Future job desired by you	When entering college N(%)	Before clinical practice N(%)	After clinical practice N(%)
ER	19 (17.4)	23 (21.1)	15 (13.8)
119 rescue team	81 (74.3)	71 (65.1)	75 (68.8)
Medical institution (other than ER)	5 (4.6)	5 (4.6)	5 (4.6)
Others	4 (3.7)	10 (9.2)	14 (12.8)

Sophomores	changes their mind	14 (22.2)	13 (20.6)
	don't change their mind	49 (77.8)	50 (79.4)
Juniors	changes their mind	11 (23.9)	17 (37.0)
	don't change their mind	35 (76.1)	29 (63.0)



[Fig. 1] Changes for future jobs between the entrance to college and before/after clinical practice

4) 전체 응답자 115명 중 중복체크나 결측치를 제외한 2·3학년 10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따라서 입학 시에는 소방서 119 구급대와 응급실로의 취업이 1급 응급구조사의 취업기관으로 인식되지만 취업과 연관된 임상실습을 경험한 후 전공 관련 희망 취업기관에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8 임상실습 전·후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한 인식

임상실습 전·후에 대한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test 및 Cronbach's alpha 신뢰 지수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4.8.1 학년별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임상실습 전·후로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학년별로 살펴보기 위해 인식이 변한 학생 수를 알아보고 인식이 변한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변했는지 긍정적으로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학년(응급실)의 경우 임상실습 전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한 인식이 평균 4점이었으나 임상실습 후 3.72점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반면 3학년(응급실, 소방서 119 구급대)의 경우 임상실습 전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한 인식이 평균 3.68점이었으나 실습 후 평균 3.66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응급실 임상실습만을 경험한 2학년은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에 비해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한 인식이 임상실습 전부터 좋은 편이었으나 임상실습 후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20, p<.05$).

<Table 9> Changes in perception about major-related jobs in association with clinical practice for each grade

Classification	clinical practice	Changes in perception (N)	M	SD	t	p
Perception of major-related jobs(Sophomores)	Before clinical practice	57	4.00	.654	2.020*	.046
	After clinical practice		3.72	.940		
Perception of major-related jobs(Juniors)	Before clinical practice	45	3.68	.701		
	After clinical practice		3.66	.825		

p<.05

임상실습 전·후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21이다.

4.8.2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중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임상실습 전·후로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한 인식 설문 문항에서 ④ : '대체로 긍정적' 혹은 ⑤ : '매우 긍정적'을 선택한 학생) 들에 한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학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학년의 경우 임상실습 전에는 '취업 분야가 적성에 맞아서' 19명(40.4%), '취업기관의 응급처치 체계에 대한 만족' 12명(25.5%), '취업기관의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 9명(19.1%), '기타' 6명(12.8%), '취업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1명(2.1%) 순이었고, 임상실습 후에는 '취업 분야가 적성에 맞아서' 19명(45.2%), '취업기관의 응급처치 체계에 대한 만족' 9명(21.4%), '취업기관의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 9명(21.4%), '기타' 3명(7.1%), '취업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2명(4.8%) 순이었다. 3학년의 경우 임상실습 전에는 '취업 분야가 적성에 맞아서' 11명(37.9%), '취업기관의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 8명(27.6%), '취업기관의 응급처치 체계에 대한 만족' 5명(17.2%), '취업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3명(10.3%), '기타' 2명(6.9%) 순이었고, 임상실습 후에는 '취업 분야가 적성에 맞아서' 13명(41.9%), '취업기관의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 9명(29.0%), '취업기관의 응급처치 체계에 대한 만족' 4명(12.9%), '취업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3명(9.7%), '기타' 2명(6.5%) 순이었다.

<Table 10> Reasons for positive view about major -related jobs

Classifi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⁵⁾ N(%)		After clinical practice ⁶⁾ N(%)	
	Sophomores	Juniors	Sophomores	Juniors
Satisfaction with working conditions	9 (19.1)	8 (27.6)	9 (21.4)	9 (29.0)
Satisfaction with the first-aid system	12 (25.5)	5 (17.2)	9 (21.4)	4 (12.9)
Satisfaction with the job in general	19 (40.4)	11 (37.9)	19 (45.2)	13 (41.9)
Sufficient knowledge about the job	1 (2.1)	3 (10.3)	2 (4.8)	3 (9.7)
Other	6 (12.8)	2 (6.9)	3 (7.1)	2 (6.5)

따라서 응급구조(학)과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 전·후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통적으로 '취업분야가 적성에 맞아서'이며, 임상실습 전·후 2학년은 '취업기관의 응급처치 체계에 대한 만족'을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반면, 3학년은 '취업기관의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을 중요시하였다.

4.9 타직종(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를 제외)에서의 임상실습 경험과 실습의 필요성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타직종 임상실습 경험 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년별 임상실습이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4.9.1 타직종 임상실습 경험 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를 제외한 타직종에서 임상실습 경험 여부와 1급 응급구조사들이 근무하는 타직종의 임상실습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타직종에서 임상실습을 해본 경험은 2학년의 경우 해본 학생이 9명(15.5%), 안 해본 학생이 49명(84.5%)이었고⁷⁾, 3학년의 경우 해본 학생이 3명(6.5%), 안 해본 학생이 43명(93.5%)이었다⁸⁾.

따라서 2학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타직종에서의 임상실습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응급구조사들이 근무하는 타직종의 임상실습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2학년의 경우 그렇다 24명(42.1%), 매우 그렇다 23명(40.4%), 보통 7명(12.3%), 그렇지 못하다 2명(3.5%), 매우 그렇지 못하다 1명(1.7%) 순이었고⁹⁾, 3학년의 경우 그렇다 22명(47.8%),

- 5) 전체 응답자 115명 중 중복체크나 결측치를 제외한 2·3학년 7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 6) 전체 응답자 115명 중 중복체크나 결측치를 제외한 2·3학년 7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 7) 2학년 67명 중 중복체크나 결측치를 제외한 5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 8) 3학년 48명 중 중복체크나 결측치를 제외한 4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 9) 2학년 67명 중 중복체크나 결측치를 제외한 5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매우 그렇다 12명(26.1%), 보통 9명(19.6%), 그렇지 못하다 2명(4.3%), 매우 그렇지 못하다 1명(2.2%) 순이었다¹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 이외에 타직종에서 임상실습 경험을 해본 학생의 수가 16% 미만이며 특히 3학년의 경우는 7% 이하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3학년보다 2학년이 1급 응급구조사들이 근무하는 타직종의 임상실습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가 2학년 82.5%, 3학년 73.9%). 이에 임상실습에 변화를 가져다줄 교육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able 11>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in other fields

Year	Experience	N(%)
Sophomores	Yes	9(15.5%)
	No	49(84.5%)
Juniors	Yes	3(6.5%)
	No	43(93.5%)

<Table 12> Necessity of clinical practice in freshmen

Year	Necessity	N(%)
Sophomores	No, not very	1(1.7%)
	No	2(3.5%)
	So-so	7(12.3%)
	Yes	24(42.1%)
	Yes, very much	23(40.4%)
Juniors	No, not very	1(2.2%)
	No	2(4.3%)
	So-so	9(19.6%)
	Yes	22(47.8%)
	Yes, very much	12(26.1%)

4.9.2 학년별 임상실습이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술 통계적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2학년, 3학년 모두 임상실습이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비교 분석한 결과, 2학년(M=4.03, S·D=0.948), 3학년(M=4.36, S·D=0.6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999, p<.05).

따라서 3학년이 2학년보다 더 크게 ‘임상실습이 졸업 후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10) 3학년 48명 중 중복체크나 결측치를 제외한 4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Table 13> The impact of clinical practice on job decision

Year	M	SD	t	p
Sophomores	4.03	.948	-1.999*	.048
Juniors	4.36	.608		

*p<.05

5. 고찰

본 연구는 융복합 사회에서 임상실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융복합 사회에 걸맞은 응급구조(학)과 임상실습 교육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향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임상실습 만족도 영역 중 실습 지도에 대한 만족도에 서 남학생(M=3.69)이 여학생(M=3.38)보다 높다.

이는 Choi 등[9]의 연구에서 업무 특성상 흉부압박, 부목 등 힘이나 체력을 요하는 술기가 많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실습 과정 참여가 많아 만족도가 높은 것과 일치한다.

3학년의 임상실습 장소에 따른 만족도에서 소방서 119 구급대(M=4.37)가 응급실(M=3.54)보다 월등히 만족도가 높다. 이는 Park 과 Kim[23]의 실습 대상지별 만족도 연구에서 응급실(M=3.198)이 소방서(M=3.109)보다 높고 응급실이 임상실습 장소로 가장 만족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선호도가 높을수록 만족도도 높아지는데 Park 등[17]의 연구에서 경기 침체로 취업이 어려워지는 현실에 학생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안정적이며 1급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소방서 119 구급대이다. 119 구급대의 높은 선호도가 만족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직업의 안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 형태를 보면 소방서 119 구급대는 공무원이며 정규직이 95.8%이고 응급실은 정규직이 44.3%이고 체제적인 승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방서 119 구급대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고 1-2년 후 퇴사하는 현재 상황은 의료기관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17].

희망 취업기관이 소방서 119 구급대가 가장 높은 것은

대부분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만을 임상실습기관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 중 한 곳을 선택한 결과로 사료된다. Park & Nam[24]은 성취동기가 강할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졸업 후 희망 취업분야는 소방공무원(119구급대)이 가장 높지만 성취동기는 산업장 응급처치원, 권역별 및 지역별 응급의료센터, 기타 순이었다. 이는 다양한 임상실습기관을 제공했을 때 임상실습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희망 취업기관도 분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후 응급실보다 소방서 119 구급대를 선호한다. 이는 대부분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의료기관 임상실습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Park & Cho[25]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는 직무 열의, 애착심, 내적 요인인 책임감, 성취감이 타 보건의료직종보다 높지만 보건 의료 유사 종보다 낮은 처우 및 계약직 고용형태 그리고 업무의 모호성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직률을 높인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임상실습 기간 동안 임상실습지도자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임상실습지도자의 근무조건과 처우가 열악하여 임상실습지도자로부터 응급실의 안 좋은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은 매우 중요한 경험으로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진로의식에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가 미래의 전공 취업 결정과 취업분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15].

임상실습 전·후로 취업 희망기관의 생각이 변할 확률은 소방서 119 구급대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이 소방서 119 구급대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2학년보다 높다. 그리고 3학년이 2학년보다 더 크게 '임상실습이 졸업 후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임상실습지도자 고용형태의 안정성과 소방서 119 구급대 임상실습의 후광효과 때문으로 사료된다. 3학년은 응급실 임상실습을 경험한 후 소방서 119 구급대 임상실습을 경험함으로써 소방서 119 구급대의 고용안정 및 고유 업무 수행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소방서 119 구급대의 연간 채용인원은 300~500명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내 응급실을 제외한 타부서는 대부분 1급 응급구조사의 정규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다가올 고도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임상실습기관의 필요함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단면 연구여서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하지만 임상실습 장소별 만족도는 Park 과 Kim[23]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며 임상실습이 취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임상실습기관의 요구도 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융복합 사회에 걸맞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9].

6.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생각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응급구조(학)과 선택요인은 '남을 도울 수 있어서'가 가장 많고, 응급구조(학)과 입학시 생각했던 희망 취업기관은 소방서 119 구급대가 가장 많다.

졸업 후의 전공 관련 취업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은 임상실습지도자(임상실습 장소)가 가장 많고, 응급구조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3/4 이상이 만족한다고 하였다.

응급실 임상실습기관의 현황을 보면 '대학병원 응급실'이 가장 많고, 임상실습 기간은 1~4주가 가장 많으며, 임상실습지도자의 자격 또는 면허는 '1급 응급구조사'가 가장 많다. 응급실 임상실습지도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44.3%이고 임상실습지도자의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가 가장 많다. 소방서 119 구급대 임상실습기관의 현황을 보면 임상실습 기간은 1-4주가 가장 많고 임상실습지도자의 자격 또는 면허는 '1급 응급구조사'가 가장 많다. 소방서 119 구급대 임상실습지도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95.8%여서 응급실보다 근무조건이 매우 양호하며 임상실습지도자의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가 가장 많다.

3학년의 임상실습 장소에 따른 인식 차이는 전반적으로 응급실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이 소방서 119 구급대 임상실습 인식보다 낮다. 임상실습 지도자로부터 알게 되는 1급 응급구조사 관련 정보에 대한 느낌은 응급실이 소방서 119 구급대보다 1급 응급구조사에 대한 정보가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고, 응급실이 소방서 119 구급대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다. 응급구조학 전공 관련 학습

에의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2학년과 3학년의 임상실습 장소에 따른 인식 차이에서 응급실만 보았을 때 임상실습 지도자로부터 알게 되는 1급 응급구조사 관련 정보에 대한 느낌은 2학년보다 3학년이 1급 응급구조사에 대한 정보가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고, 응급실에 대한 임상실습 만족도는 2학년과 3학년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 응급실 임상실습의 응급구조학 전공 관련 학습에의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2학년보다 3학년이 높다.

입학시와 임상실습 후의 희망 취업기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는 희망 취업기관으로서 감소하고, 기타 기관(군·교육·국가기관 등)은 꾸준히 증가하며, 의료기관(응급실 제외)은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응급실이 임상실습 전·후에 희망 취업기관으로서의 감소가 확인하다.

임상실습 전·후에 따른 전공 관련 취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만 경험한 2학년의 경우 임상실습 전보다 임상실습 후에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고 응급실과 소방서 119 구급대를 경험한 3학년의 경우 임상실습 전·후 차이는 거의 없다. 이는 Hwang & Uhm[26]의 직업 이미지 연구에서 병원실습 경험 후에는 부정적으로 변하나 소방 실습 경험 후에는 차이가 없는 것과 일치한다.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2학년, 3학년 모두 '취업분야가 적성에 맞아서'지만 2학년은 '취업기관의 응급처치 체계에 대한 만족'을 다음으로 중요시한 반면 3학년은 '취업기관의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을 다음으로 중요시한다. 이는 Park 등[17]의 연구에서 '전공을 살릴 수 있어서', '안정성'순으로 선택한 것과 차이가 있다.

타직종에서 임상실습을 해본 학생의 수는 2학년, 3학년 모두 매우 저조했다. 타직종에서 임상실습 경험을 해본 학생의 수는 2학년, 3학년 모두 16% 미만이며, 특히 3학년의 경우는 7% 이하여서 심각한 수준을 보인다. 타직종 임상실습 기관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2학년은 82.5%, 3학년은 73.9%가 타직종의 임상실습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임상실습의 변화를 가져다줄 교육적 개선의 필요함이 요구된다.

소방서 119 구급대의 1급 응급구조사 수요는 많으나 연간 채용인원이 300~500명에 불과하고 응급실의 1급 응급구조사 수요는 타직종에 비하여 매우 적으므로 지급

처럼 응급실 임상실습과 소방서 119 구급대 임상실습을 이분화하여 임상실습 교육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1급 응급구조사들이 고도의 취업난을 겪게 될 것은 확인하다.

임상실습을 통한 직무 교육은 수행 빈도가 많을수록 수행 자신감과 수행능력이 높아진다[27]. 전문직으로서의 향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임상실습 참여가 이루어져야 학습자에게 가장 가치 있고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28]. 다양한 임상실습기관에서의 임상실습 교육을 통하여 타직종에서의 업무 수행을 많이 경험하게 하여 타직종에서의 수행 자신감과 수행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함이 요구된다.

융복합 사회에서 1급 응급구조사는 다양한 취업분야로 진출하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특성을 잘 알고, 관련 전문 지식이나 선배로서의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는 1급 응급구조사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임상실습 만족도는 가장 높다[9]. 의료기관 내에서는 수술실의 취업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다양한 임상실습 기관에서의 임상실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임파워먼트를 통한 직업 선택 기회를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6].

학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줄수록 취업진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며 취업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학이나 학과의 역할이 매우 크다[17]. 다양한 임상실습 기관에서의 임상실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취업 정보의 제공과 취업 자신감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습자에게 가장 가치 있고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분야에 대한 연구와 함께 다양한 임상실습 기관의 형평성 있는 평가표의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다른 직종과 달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성과 기초직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실습과목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11].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경기도에 소재한 1개 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단면 연구여서 임상실습 장소별 만족도, 임상실습이 취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임상실습기관의 요구도 등과 관련 요인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이 취업 결

정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융복합 사회에서 다양한 임상실습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Kim SS.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in Korea." *Korean J Emerg Med Ser*, Vol. 13, No. 2, pp. 17-59, 2009.
- [2]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2015 Emergency Medical Service Statistical Yearbook", p47, 2015.
- [3]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2015 Emergency Medical Service Statistical Yearbook", p58, 2015.
- [4] Lee OH. "The Work and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in the Emergency Room of University Hospitals." *Korean J Emerg Med Ser*, Vol. 15, No. 1, pp. 47-63, 2011.
- [5] Huh JI, Park JM. "Work and job satisfaction of militar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Korean J Emerg Med Ser*, Vol. 19, No. 3, pp. 33-49, 2015.
- [6] Yoon JG, Lee YH, Jung J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s within Hospital at Partial Areas." *Korean J Emerg Med Ser*, Vol. 9, No. 2, pp. 21-28, 2005.
- [7] Kim SM, Jung MS. "Rol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EMT) in Hospital." *Korean J Emerg Med Ser*, Vol. 4, No. 1, pp. 31-34, 2000.
- [8] Kwon HR. "Study on Reality of Field Practice and Improvements by Students of Dep.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orean J Emerg Med Ser*, Vol. 6, No. 1, pp. 15-26, 2002.
- [9] Choi SS, Park J, Ryu SY, Han MA. "Current status of clinical practice and associated factors with satisfaction among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Korean J Emerg Med Ser*, Vol. 16, No. 2, pp. 9-22, 2012.
- [10] Song SY, Han MA. "Factors related to empowerment of paramedic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Korean J Emerg Med Ser*, Vol. 20, No. 1, pp. 17-30, 2016.
- [11] Choi 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2, pp. 759-767, 2013.
- [12] Nam MH, Kim HO. "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 pp. 263-273, 2016.
- [13] Song JH, Kim MW.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pp. 251-264, 2013.
- [14] Lee JR, Lee HR, Kim KS, Kang GA. "Current Status of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um in Bachelor Program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7, No. 1, pp. 26-37, 2006.
- [15] Lee HS, Noh JS, Cha JJ, Kim SR, Kim SG, Park SG et al. "The change of awareness of decision on employment through the fieldwork for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8, No. 1, pp. 107-120, 2010.
- [16] Jung MA, Kim SS. "Ethical Values of EMT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Vol. 10, No. 3, pp. 21-32, 2006.
- [17] Park SM, Choi ES, Kim MS, Lee GY. "Career Choice and Employment Preparation Condition for EMT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Vol. 15, No. 1, pp. 65-78, 2011.
- [18] Kim YJ. "An analysis of consumption behavior and consumption problem according to the digital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2, pp. 149-156, 2016.
- [19] Hwang SW. "Study on Changes and Characteristics in the convergence era furniture desig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9, pp. 437-446, 2016.
- [20] Lee SW, Cho YE, Lee KS. "The Role of justi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ur in the relation between measurement diversity and managerial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1, pp. 219-231, 2013.
- [21] Ko KI. "A Critical analysis of NCS-based Curriculum"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69-82, 2015.
- [22] Hong SG, Koh BY, Lee JE. "Curriculum development and operation methods based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in the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orean J Emerg Med Ser, Vol. 19, No. 2, pp. 83-97, 2015.
- [23] Park JM, Kim SS. "Comparison study of satisfaction levels on Field Practice of EMT college students by 5 Practice Fields." Korean J Emerg Med Ser, Vol. 2, No. 1, pp. 7-25, 1998.
- [24] Park DS, Nam KW. "A Correlation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EMT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Vol. 11, No. 3, pp. 47-64, 2007.
- [25] Park CS, Cho KJ. "Effects of job insecurity and job engagement on turnover intention of paramedics i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Korean J Emerg Med Ser, Vol. 19, No. 2, pp. 51-60, 2015.
- [26] Hwang SH, Uhm DC. "Factors influencing the image about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jobs in paramedic students." Korean J Emerg Med Ser, Vol. 18, No. 3, pp. 63-75, 2014.
- [27] Han HH. "A Study of Convergence on Frequency of Performance, Self-Confidence,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of Core Nurs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355-362, 2016.
- [28] Park HH, Lee GO, Kim SO.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f Clinical Nurses in Job Train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319-329, 2016.

정 상 우(Jung, Sang Woo)



- 2013년 3월 ~ 2015년 8월 : 가천대학교 대학원 응급구조학 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원 응급구조학 박사과정
- 2016년 4월 ~ 현재 : 동남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
- 관심분야 : 전문인명구조학
- E-Mail : swjung@dongnam.ac.kr